

# 확진자에 노출된 촬영장, 일정 '올스톱'

'경이로운 소문' 제작발표회 취소  
'달이 뜨는 강' 촬영 중단한 상태  
확진·밀접접촉자로 곳곳 일정 차질  
감염 확산 막을 뾰족한 수도 없어



'코로나 위기'가 방송가에도 다시 몰아 닥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일일 300명 대까지 치솟고,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4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감염병의 가파른 확산 세에 방송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 나온 일부 드라마의 촬영현장이 '올스톱'됐고, 작품 홍보를 앞둔 연기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면 인터뷰를 줄줄이 취소했다. 방송관계자들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 '달뜨강'→'경이로운 소문'까지, 멈춤 도미노  
23일 오후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기

로 했던 OCN 토일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은 당일 이를 취소하고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같은 세트에서 촬영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보조출연자 한 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탓이다. 해당 출

연자의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달이 뜨는 강' 제작진은 촬영을 중단한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강하늘, 김소현 등 주연들은 보조출연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 '조선구마사'와 MBN '보쌈-운명을 훔치다', 넷플릭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등 또 다른 드라마 촬영현장에서도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 발생해 촬영이 전면 취소됐다. '조선구마사' 제작진은 이날 "보조출연자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드라마의 보조출연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촬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보조출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보쌈'과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의 제작진 역시 진단검사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JTBC '경우의 수' '러온', tvN '여신강림' 등도 비슷한 사태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경우의 수'는 예정보다 한 주

늦은 28일 종영하고, '러온'도 최근에는 12월16일 첫 방송 일정을 확정했다.

각종 행사도 연이어 취소됐다. 25일과 27일 각각 인터뷰를 예정했던 연기자 박하선과 임지원은 이날 급히 "대면이 아닌 서면 인터뷰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 '뾰족한 대책이 없다'

한 방송관계자는 "보조출연자들은 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드라마에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드라마와 병행하는 조연들도 적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최근 촬영 중인 모든 드라마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드라마 제작관계자도 "드라마 촬영장에서 배우와 스태프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발열 체크도 꼼꼼히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렇다고 촬영을 무기한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김선호 & 안보현 '서브병 유발자들'

'스타트업' 김선호, 배우지 조력자  
'카이로스' 안보현, 배신의 아이콘  
흥미로운 서사·반전 시청자들 호평



김선호 안보현

연기자 김선호와 안보현이 '서브 병(病) 유발자'로 통하고 있다. '서브 병'은 시청자가 서브, 즉 비중이 높은 조연인 '서브 주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는 의미

의 신조어다. 김선호와 안보현은 tvN 토일드라마 '스타트업'과 MBC 월화드라마 '카이로스'에 각각 출연하며 남자주인공 만큼이나 흥미로운 서사와 반전을 펼쳐 시청자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김선호는 '로맨스 주역'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극 중 투자기업의 탐정인 그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배우지의 조력자 역할이다. 배우지의 첫사랑인 펜팔 친구 '남도산'을 꾸며낸 당사자로, 남자주인공 남주혁과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며 이야기를 이끈다.

김선호에 대한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다. 배우지와 과거부터 엮힌 김선호가 남주혁의 이야기보다 더 공감 간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애뜻한 짝사랑을 표현하면서 뽀넨 탄탄한 연기력도 화제물이에 큰 몫을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tvN '백일의 낭군님' '유령을 잡아라' 등 그의 과거 드라마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에 힘입어 드라마는 최근 5.4%(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카이로스'에서 반전을 거듭하는 안보현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로 특목히 활약한다. 극 중 딸을 잃은 주인공 신성록의 측근에서 배신자로 한순간에 돌변한 그는 드라마의 핵심으로 통한다. 신성록 딸의 유괴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휘몰아치면서 시청자 사이에서는 '안보현에 감쪽같이 속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연에서 단번에 핵심 인물로 올라선 안보현의 각오는 남다르다. 그는 "'기회'라는 의미를 지닌 드라마 제목처럼, 새로운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2관왕

소셜 아티스트·팝/록 그룹 2개 부문  
신곡 '라이프 고스 온' 피날레 장식

이제 '그래미'만 남았다.

그들 방탄소년단이 23일(한국시간) 미국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s)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앞서 10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도 4년 연속 수상한 이들은 이제 내년 1월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를 정조준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3대 음악상 석권을 노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그룹'과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AMAs는 팬 투표로 수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가장 대중성이 강한 시상식으로 여겨져 방탄소년단이 현지에서 얻는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이날 미국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무대에서 글로벌 그룹다운 명성을 과시했다.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그룹'에서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이 23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주요 부문인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그룹' 등 2관왕에 오르며 글로벌 그룹의 위상을 과시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인기를 누리는 조나스 브라더스, 마룬 5 등과 경합한 끝에 2년 연속 상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영향력과 인기를 토대로 하는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

도 2018년 이후 3년 연속 수상했다.

멤버들은 서울에서 보낸 영상을 통해 "직접 (상을 받으러) 참석할 수 없어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불확실하고 회의감

으로 가득했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응원과 사랑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기에도 음악을 통해 세상에 위로로 전할 수 있는 그룹으로 남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세계적인 입지를 알려주듯 최근 발표한 신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 무대로 이날 시상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멤버들은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사전 촬영한 무대 영상을 시상식 측에 전달했다. 최근 어깨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슈가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라이프 고스 온' 무대를 월드투어와 같은 디자인의 세트에서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사의 메시지를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무대를 물들였다. 뒤이어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정상을 휩쓴 '다이너마이트' 무대로 특유의 흥겨운 퍼포먼스로 꾸며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정연 기자 annyoy@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종교재단'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성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 창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646-4950  
● 울산 서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욱 010-6258-3510 / 오영숙 010-3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우만 홍원표 010-6717-171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보정 010-6416-1888 ● 이진 허찬석 010-4707-2659  
● 관서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드래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리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함태도 010-6806-1931 / 노수림 010-5153-5983 ● 평강 교명철 010-5463-6952 ● 충북 충주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위이 윤이나 010-8763-8742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결제기부 플랫폼

하이우분투(주)  
Hiubuntu 1644-6733